

국민 70% “스마트폰은 필수 매체”

KISDI 보고서... 70세 이상 60% 스마트폰 보유 5년새 3.4배 급증 10~30대, TV보다 스마트폰 많이 이용...“TV 필수”는 27.1% 불과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국민이 작년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국민은 감소세를 보이며 2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 4236가구의 만 13세 이상 남녀 6834명을 방문해 면접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선택한 응답자는 70.3%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조사 결과(55.5%)에 비해 14.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한 응답자는 27.1%로 2016년에 비해 11.5%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10대 중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한 비율은 0.1%에 불과했고, 20대와 30대도 각각 4.5%와 9.2%로 10%를 밑돌았다. 그러나 스마트

폰을 선호하는 10대는 96.9%였으며 20대와 30대는 각각 92.2%와 85.1%였다.

40대와 50대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각각 84.3%와 70.4%로, TV 선호(12.6%와 29.1%)를 압도했다.

60대는 스마트폰 선호가 44.1%로 TV 선호(54.3%)보다 적었지만, 2016년 TV 선호가 79.2%로 스마트폰 선호(17.6%)의 4.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다

스마트폰과 TV 이용 시간의 변화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음성 통화 제외·이용자 기준)은 하루 평균 122.9분으로 2016년(99분)에 비해 23.9분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TV 시청 시간(주중·이용자 기준)은 하루 평균 175.1분으로 같은 기간 12.5분 늘었다.

다만 TV 시청 시간은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10대의 TV 시청 시간은 일평균 66.1분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170.3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0대에서 “TV 수상기보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응답자(“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2016년 17.3%에서 작년 49.9%로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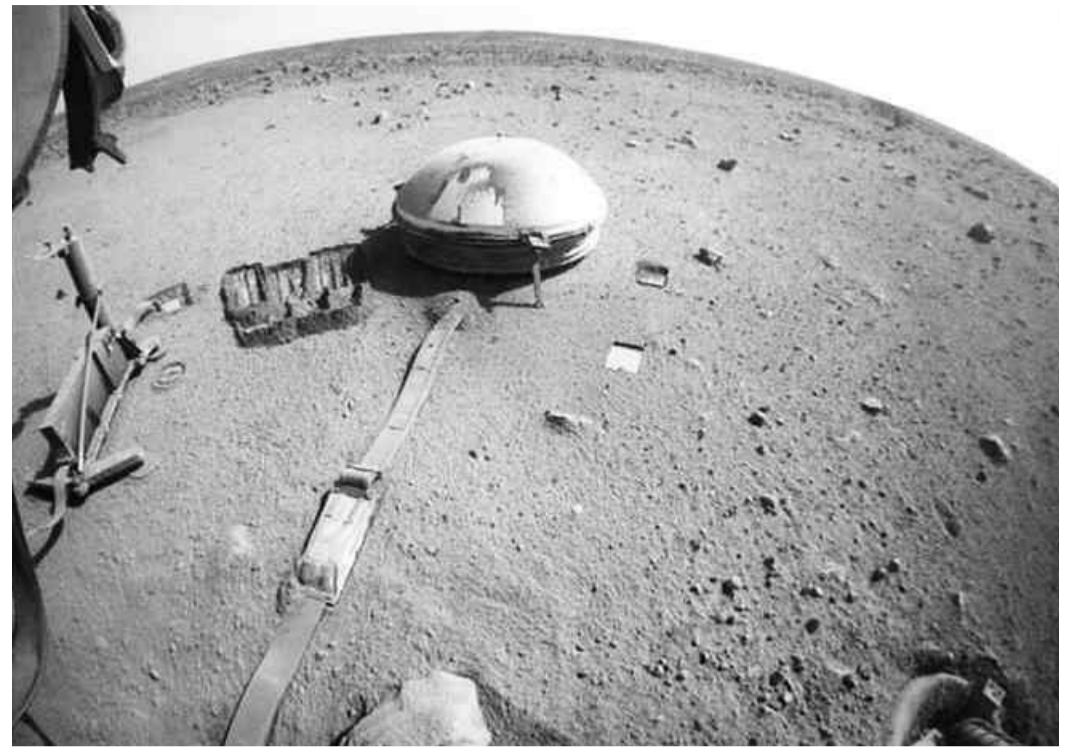
20대와 30대도 작년 TV 시청 시간이 각각 109분과 134.7분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192.1분과 156.8분)을 밑돌았다.

반편적인 국민 매체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 비율은 2012년 57.5%에서 2016년 83.3%, 2021년 93.4%로 꾸준히 증가했다.

50대 이하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작년 98%를 넘으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60대(91.7%)에서도 90%를 넘었다.

70세 이상은 60.1%로 2016년 17.6%의 3.4배로 급증했다.

KISDI는 스마트폰 선호와 스마트폰의 영향이 고연령층으로 확산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이용 시간보다 인식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TV 대체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화성 적도 인근에 착륙한 인사이트호가 설치한 지진계.

/연합뉴스

화성 적도 인근 지하에 기대했던 물 흔적 없어

탐사선 ‘인사이트호’ 지진파 활용

화성 지질탐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착륙한 적도 인근 지하에 기대와 달리 물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지구물리학자 바산 라이트 박사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인사이트호가 ‘화진’(Marsquake)을 통해 수집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를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했다. 인사이트호는 지난 2018년 화성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해 지진계를 설치하고 화성의 지진이나 운석 충돌과 관련한 지진파 자료를 수집했다.

지진파는 통과한 물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화성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착륙지 300m 이내 표층의 퇴적물에는 얼음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화성의 고대 바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이 지하 광물의 결합력을 높이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기대도 어긋났다.

방해석이나 점토, 카올리나이트, 석고 등과 같은 결합력을 가진 광물은 지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암석물리학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인사이트호가 수집한 지진파 속도를 분석했지만 이들 광물보다는 결합력 없는 물질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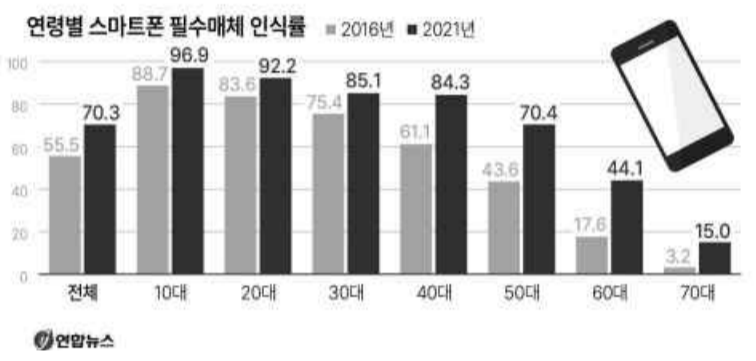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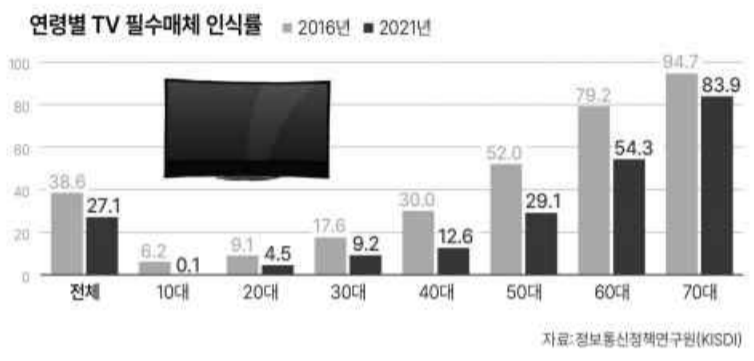
논문 공동저자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마이클 망가 교수는 “암석이 물과 접촉하면 점토와 같은 새로운 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때 물은 액체가 아니라 광물 구조의 일부가 된다”면서 “암석이 어느 정도 결합력을 갖고 있지만 많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화성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 물이 없고 방사선에 노출돼 있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하를 탐색해 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의 암석 및 토양 시료를 가져오는 미션 이후에는 지하 2m까지 파고들어가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전국 4,236가구 만 13세 이상 남녀 6,834명 방문 면접 조사 단위: %



싸이월드 ‘다이어리’가 다시 펼쳐진다

11억건 복원 9월 1일 공개... 회원 추첨 기념 이벤트도

싸이월드는 다음 달 1일 ‘다이어리’ 기능을 재개 하면서 과거 이용자들이 다이어리에 남긴 11억건의 글을 모두 복원해 각자에게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원된 다이어리는 ‘[추억]’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용자가 보유한 폴더명으로 업로드된다. 과거 싸이월드를 이용했다가 휴면 상태를 해제한 회원들은 추억의 다이어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사 에프엑스기어와 함께 다이어리 복원 작업을 벌였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다이어리 기능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싸이월드 다이어리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남길 수 있고, 리뉴얼된 스킨과 스티커를 활용해 이른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수 있다. 싸이월드는 다이어리 재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신의 ‘추억다이어리’ 폴더에 업로드된 과거 게시글을 전체공개하는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도토리과 커스텀 미니미, 나만의 폰트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 일주일간 다이어리에 한 건 이상의 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다이어리 스티커를 준다.

싸이월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해 오늘 거리는 마음으로 읽는 재미가 상당할 것”이라며 “다이어리 본연의 기능을 모바일 환경에서 그대로 살렸다”고 말했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밀려 심각한 사용자 감소를 겪었고, 운영 주체가



돌아온 싸이월드 다이어리

몇 차례 바뀐 끝에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가 올해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연합뉴스

KISA, AI 활용 악성앱 특징정보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앱 특징정보’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 파일의 일반속성(Metadata) ▲ 통신(Network) ▲ 악성앱 관련 공격전략 및 기술(ATT&CK Matrix) ▲ 디나믹 인포(Dynamic Info) ▲ 파일의 동적행위 및 정적 정보(Static Info) ▲ 그 외 부가데이터(ETC) 6개 항목의 43개 악성앱 세부 특징정보와 예시 데이터, 설명 등이다. 이는 모바일 앱의 악성여부 판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회적 문제

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 선별을 통해 대응·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KISA는 기대했다.

KISA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징정보 관련 원천 데이터 및 데이터셋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KISA 이원태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악성앱 분석기술과 노하우를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국내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보호 전문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역지능을 높이는 등 안전한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랑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